

우리나라 자수에 對한 考察

—베갯모를 中心으로—

가 정 과

조 교 수 吳 今 順

I. 序 論

刺繡는 歷史的으로 衣類의 發達과 함께 衣服에 裝飾함으로써 發展하게 되었으며 時代가 흐름에 따라 衣服 뿐만 아니라 室內裝飾에도 使用되었다.

우리나라 刺繡는 色彩와 무늬로서 귀, 친 계급을 구별하는 衣裳과 함께 여러가지 方法으로 發展해 온 文化的 產物이다.

刺繡는 우리 生活에 있어서 女性의 趣味生活을 健全한 方向으로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創作藝術로서 情抒를 길러주며 崇高한 精神과 침착한 마음을 갖게한다. 대체로 刺繡는 衣服의 裝飾, 족자, 병풍, 액자 그밖에 여러 가지 日常用品에 광범위하게 應用되고 있다. 우리나라 婦女子들은 外出하는 일이 비교적 적고 家庭內에서 生產業으로 衣類生産을 주로 했으며 손재주가 있어서 刺繡를 많이 했으나 刺繡는 다른 工藝品 生産과는 달리 多數의 職人을 使用하여 量産할 수 있는 企業으로 發展시킬 수 없는 實情이었다. 그것은 刺繡의 材料가 織物과 纖維이며 製作方法과 製作道具로 인해 女性特有的 技藝이며 機能的으로 家內的이고 手工藝的이기 때문이며 女性의 것이기 때문이다.

刺繡作品中에서 素材나 材料에 거의 변화가 없는 베갯모는 二次大戰 以後 西洋文物의 流入으로 더욱 發展을 보지 못했다. 刺繡作品은 衣裳과 마찬가지로 長期間의 保管이 不可能하며 歷史的으로 남아 있는 作品을 보기가 힘들다. 더구나 베개는 生活必須品이며 消耗品이기 때문이다. 이에 稀少한 資料를 最大한 되찾아 繡法에 나타난 技藝나 圖案에서 各樣의 變化를 體系化시켜 봄으로써 그 時代狀이나 生活의 背景까지를 파악할 수 있는 小考가 되지 않을까 하여 刺繡의 變遷을 考察하려 한다.

II. 우리나라 刺繡

東洋刺繡는 페르샤에서 시작되어 이란에서 發達을 보고 불교가 융성했던 인도에서 더욱 發達되었으며 인도의 불교가 中國에 傳來된 以後 中國을 거쳐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에 들어와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極盛하였던 高宗때 盛行되었고 日本에 건너갔다.

高麗는 新羅의 豪華를 極하였던 衣服裝飾을 물려 받은 것은 勿論이고 宋·元과의 密接한 外交政策으로 服制에도 자연 그들의 것에 영향이 미쳤으니 그들의 刺繡技術도 단연히 流入되었을 것이다. 當時 宋·元에서는 唐과 같이 金絲나 金泊紫를 곁들여 繡는 技巧가 극도로 發達되었다.¹ 백성들이 비단에 繡를 놓았고 婦女子들의 치마에 龍, 鳳凰의 무늬로 金泊을 했거나 繡를 놓았다. 잔치상에도 繡놓은 붉은 비단을 깔고 그 비단이 베키에 드리우게 되었다고 하며 繡枕은 흰빛 모시로 주머니를 만들고 그속에 열매나 향초(香草) 같은 것을 넣었으며 양쪽 머리는 주름을 잡아 金絲로 꽃무늬를 繡는 것이 극히 정교하였는데 或 비단으로 장식해서 연꽃같은 紋樣을 繡놓기도 하였다.¹

李朝時代에는 王服을 비롯하여 文武官 常服의 胸背와 머리에 階級表識을 위한 繡와 궁궐안에서 裝飾을 目的으로 하는 官繡가 있으며 貴婦人들은 대개 족자, 병풍 등에 花鳥, 山水 등을 刺繡하였다.

閭閻叢書 我國文官胸背繡品에 文官은 九帛 이상으로부터 王堂까지 외학(孤鶴)이오, 堂上으로부터 一品까지 雙鶴이오, 大君은 金鳳이오, 駙馬는 金鶴胸背다. 武官은 堂上 이상은 쌍사(雙獅), 堂下는 獨사(獨獅), 邊將類는 호랑이 胸背다. 「大君은 雙鳳胸背다」, 또 經國大典儀章에 記錄되기를 官吏들의 옷과 갓 및 부속 裝飾品 등의 制度를 정하고 一品官은 平常時에도 명주 비단 등의 옷을 입고 胸背에는 繡를 놓는다. 大君은 麒麟, 王子와 君은 白鶴, 文官은 孔雀, 武官은 범이나 표범무늬를 繡 놓고, 二品官의 常服도 一品官과 같으나 胸背의 刺繡는 文官은 雲鶴, 大司憲은 해태, 武官은 범 무늬를 놓고 三品中에는 堂上官은 一品官과 같으나 刺繡에 있어서 文官은 한새 武官은 곰의 繡를 놓았고 堂下官은 平常時 衣服의 制度가 없다 했으니 階級에 따라 繡의 素材에도 차이가 있었든 것을 알 수 있다.¹

한편 宮中에는 內人들이 있었는데 至密內人, 針房內人, 繡房內人, 洗水間內人, 菓房內人 燒酒房內人, 洗踏房內人 등이 있었고 繡房內人은 宮中에서 所要되는 자질그레한 일들을 하고 방안에 裝飾으로 수전걸이, 베갯난자, 그릇받침 등을 만드는 고얏방이란 것이 있었다.

繡의 紋樣에는 十長生(水, 石, 雲, 鶴, 松, 不考草, 竹, 鹿, 月, 龜), 四君子, 鳳凰, 松鶴, 龍, 牡丹, 壽, 福, 壽, 鳥, 연꽃 등이 대표적인 圖案이었다. 宮繡에서 보는 雲紋이나 唐草鶴 등의 表現이 巧妙한 變化적인 繡法과 섬세함에 비해 民繡는 소박하긴 하나 그 나름대로 李朝特有의 圖寫風의 구수한 멋이 깃들여지고 集約된 線과 色調로서 優雅한 傳續刺繡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²

衣服裝飾 외에 우리의 소지품에도 繡를 놓았다. 繡囊은 비단에 繡 놓아 만든 것인데 婦女子들이 차는 주머니였다. 紅緞에 繡 놓은 주머니를 계속 세게 차면 後世에 좋은곳에 간다는 풍속이 있어 老人들은 紅緞 繡주머니 차는 것을 즐겨하였다. 그 이유는 壽를 상징하는 十長生을 繡 놓은 데서였다.³ 주머니는 우리의 소지품으로 옛날부터 돈을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福주머니로 一般이 즐겨 소지하였다. 또 女子들 손수건에도 간단한 무늬를 繡 놓기도 하였다.

日帝時代의 刺繡는 日本刺繡로 寫實主義의인 刺繡가 등장하여 刺繡에 芯을 넣어서 立體感을 나타내게 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刺繡는 現代刺繡로 우리 固有의 文化를 찾아 다른 藝術과 마찬가지로 활발하여졌다. 勞力과 時間의 消耗가 많은 寫實的인 圖案에서 抽象的으로 發展하여 刺繡의 機能面이 새로운 方向으로 展開하게 되었다. 文化水準의 發達로 素材와 바탕감의 선택범위가 넓어졌으며 技法도 多様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Ⅲ. 베개의 種類

베개는 누울 때 머리에 베는 기구로 만든 材料와 用度,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이 있다. 첫날 밤에 신랑, 신부가 베는 鳳枕, 원앙침, 잣베개가 있고 옛날에 勢度높은 귀족, 양반집에서 옆에 놓고 반누워 기쁠 때 쓰는 雙枕, 四六枕, 長枕이 있으며 사랑방에서 老人들이 자주 베는 넓이 10cm쯤되는 나무쪽으로 네모지게 짜서 안에 콩, 은행을 2~3알 정도 넣고 만든 退枕, 둥근 나무나 네모진 나무를 20cm쯤 잘라서 베는 木枕, 婦女子가 內房에서 베는 6골(六陵)진 陵枕, 여름철에 대나무로 만든 竹枕, 涼枕 등이 있다.

베개는 양쪽모에 繡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繡놓은 베개를 繡枕이라 하며 男子用 베개는 男枕이라 하여 베개 높이가 다른 베개보다 높고 네모진다. 베갯모의 무늬는 주로 글씨이며 양쪽모에 같은 글씨로 하거나 다르게도 하며 빨강색이나 초록 바탕에 주로 남색 글씨이다. 女子들이 사용하는 베



Fig. 1. Pong C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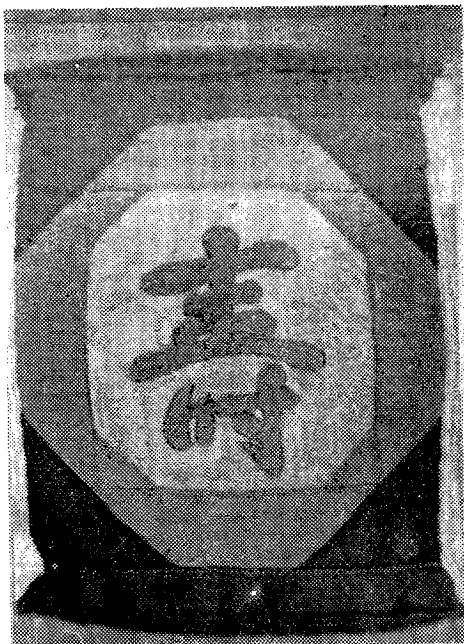


Fig. 2. Thoy C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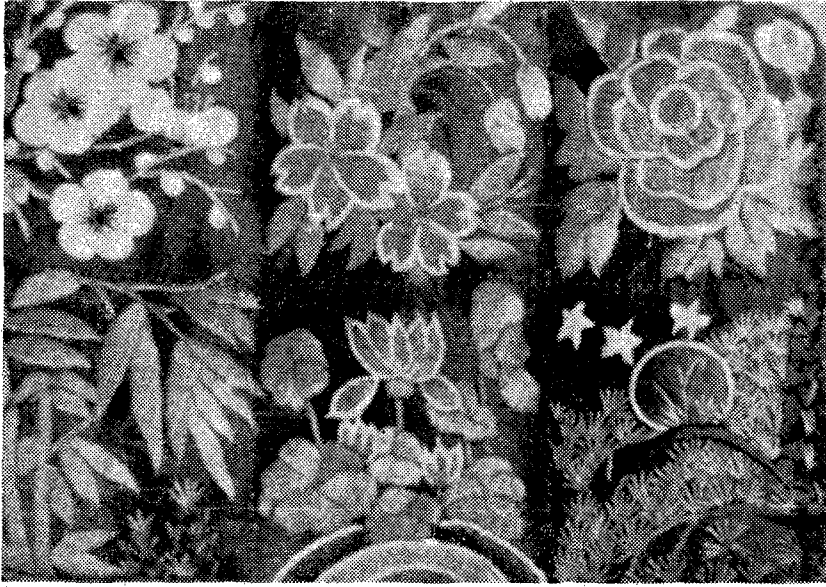


Fig. 3. Kol Chim

개는 둥근 베개로 베갯모의 무늬는 花繡로 양쪽모가 같으며 가장자리에는 亞字를 여러가지 색으로 들렀다. 잣베개는 繡가 없으나 繡 대신으로 여러색의 천조각으로 잣모양으로 붙여 대며 만든다. 少女들 베개는 五色으로 色同베개를 만들고 유아용 베개는 알팍해서 繡놓지 않고 사용한다.

陵枕(Fig. 3)은 베갯모를 6골로 만들어 골마다 서로 다른 6가지 무늬로 刺繡하며 여섯개의 골을 만들므로 골침(kol chim)이라고 한다. 무늬에는 花繡(무궁화, 벚꽃, 매화, 목단, 연꽃, 솔, 대)와 書繡 두 가지가 있으며 刺繡하지 않고 6골만 만들어 꿰메기도 한다. 또 花繡와 곁들여 열매인 딸기, 오이, 가지 등의 紋樣도 사용했다. 베갯모의 무늬가 태극무늬인 태극침이 있고 刺繡하지 않고 감에 smock한 smock 베개가 있다. 베개는 중간에 아구리를 통하여 속을 넣는데 成人用은 메밀껍질, 왕겨, 벚짚을 사용하며 유아용 베개는 조, 수수를 넣는다.

베개의 길이는 20~30cm 가량이며 鳳枕, 원양침, 잣베개는 두 사람이 뉘수 있도록 50cm 가량 길게 한다. 刺繡 베개외에 西洋文物의 道入으로 一般家庭에서 많이 愛用되고 있는 침대베개(자루베개)가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織物은 絹織物 외에 毛織物 등 多樣하며 속은 닭털, 스펀지, 필터 등을 넣는다. 刺繡베개에 비하여 負擔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많이 市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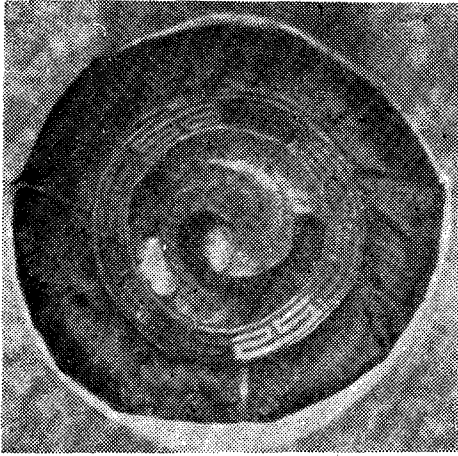


Fig. 4. Thay Kukchim

IV. 베갯모의 刺繡

1. 圖 案

刺繡圖案은 그 特性에 비추어 전혀 별개의 創作的 policy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刺繡作品이 平面的인 수틀에 의한 作業으로서 平面上의 造形手段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큰 이유는 刺繡라고 하는 技巧의 妙가 特殊한 可親形式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² 刺繡에 있어서 圖案은 技法과 마찬가지로 生命이다.

오늘날의 時代的 感覺과 生活感情을 表現하는데 적합한 새로운 材料가 이 材料의 特

性을 살릴 수 있는 색다른 刺繡의 素材가 開發되며 모든 刺繡가 現代刺繡로서 刺繡圖案의 形式의 幅이 없어졌으나 베갯모의 刺繡圖案은 東洋畫의 素材선택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李朝風의 宮繡나 民繡에서 볼 수 있는 styl이다.

베갯모 刺繡의 紋樣으로는 봉황, 鶴, 소나무, 불로초, 거북, 글씨(壽, 福, 多男, 康, 寧, 富, 貴), 국화, 무궁화, 벚꽃, 牡丹, 매화, 亞字紋, 평, 태극紋, 등이며 이는 모두 吉祥紋樣으로 그들이 念願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一常生活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生活用具에 裝飾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明, 淸時代에 가장 吉祥紋이 分化發展되었으며 복잡화되었고⁴ 皇後大禮服에 萬壽多男子의 길조를 무너놓는 것을 보아도 宮中의 비는 마음이 그 衣裳에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⁵ 鳳凰紋은 高句麗의 古墳壁畫中에 天王地神塚北面 上部 天王圖像에 鳳凰을 타고 幡을 들고 있는 一神을 그렸다⁶고 되어 있으며, 삼국時代에는 瓦當, 磚 등에 唐草花紋과 같이 사용했으며, 李朝時代에는 吉祥思想이 強했기 때문에 더욱 많이 쓰였다. 家具類에도 사용했으며 刺繡 외에 金泊에도 쓰였다. 이는 경사스러움을 상징하는 想像上의 새로서 실존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선조로서 貴하고 전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수컷을 鳳, 암컷을 凰이라고 하며 용, 거북, 기린과 함께 四靈을 이루는데 그 彩色과 形像이 아름다운 것이어서 生活用品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十長生中 하나인 鶴은 中國의 吉祥思想과 더불어 神祥思想에서 비롯되었다. 李朝時代에 들어와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鶴이 지닌 優雅淸楚한 形態感과 生態가 우리 民族의 嗜好에 適合했다는 것이며 실존의 새로서 女子보다 男子의 淸렴고결과 長生中의 하나라 千年壽鶴, 萬年壽龜를 말하듯이 長壽의 상징으로 알려졌다.⁶ 신라 善德女王時 唐으로부터 傳해진 牡丹은 富貴의 상징으로 쓰였으며 壽福이나 富貴 등의 文字紋과 같이 사용된다. 李朝時代에는 女人들과 庶民들에



Fig. 5.



Fig. 6.

게 愛用된 꽃으로 베갯모, 織物紋, 자수병풍, 수노리개 등에 많이 쓰였다. 槿花(무궁화)는 우리나라의 國花로 끝과 한이 없는 無窮의 뜻을 나타낸다. 花草는 보아서 아름답기도 하려니와 색의 무늬가 수놓아졌을 때 더욱 돋보인다. 刺繡用 외에 家具類에도 많이 쓰이는 亞字紋(Fig. 5, Fig. 6, Fig. 7: 朝鮮朝繡枕紋版本)은 간혹 雷紋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그 理由는 雷紋속의 어떤 形態는 單純化한 것이라고 보는 까닭이고 亞字紋은 紋樣의 形態感으로 보아 붙여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紋樣은 그 機能이 단독 紋樣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고 항상 어떤 主題內容의 從的裝飾으로 그 가장자리를 연속지어지는 것이 常列이다.⁷ 근래에는 보통 완자(卍字)紋(Fig. 10. 朝鮮朝繡枕本, 에밀레 미술관장)이라 한다.

李朝時代에 한때의 유행으로 태극紋樣을 사용했으나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태극선, 裝飾品에 태극무늬가 곁들여 있다. 태극은 萬物의 生成과 繼承存續함과 아울러 人類가 나면서 부터 少年期, 中年期, 壯年期를 거쳐 老年期에 이르러 一生을 마칠 때까지 有子生女하여 다음으로 세대를 거쳐 나가는 것의 유기적 순환은 태극의 原理이며 도덕적 倫理觀에서 이 탈하지 아니하고 法道를 만들어서 그속에서 지키고 실행하며 一生을 마치는 것도 또한 태극의 순환의 道理이며 中央의 원으로서 태극을 表現함은 우주전체를 말함이고 곡선으로서 음양의 배합을 무궁무진하게 영원한 순환을 이루게 한 것은 우리나라가 영원무궁하도록 번성함을 표시함이다.⁸ Fig. 4의 태극 紋樣은 원래의 곡선을 변형시킨 것이다. Fig. 5는 文字紋樣으로 李朝時代에는 長壽 뿐만 아니라 多産을 重要視한 것으로 보인다. 또 多男象徴紋으로 박쥐紋이 있는데 家具類, 磁器類의 조각과 베갯모, 주머니, 상보, 노리개 등의 刺繡에 많이 사용했다. 장수를 비는 壽(Fig. 6, Fig. 8, Fig. 9: 朝鮮朝繡枕本, 에밀레 미술관장), 또는 富貴를 象徴하는 Fig. 2의 福字와 같은 吉祥語紋은 漢字의 意味가 좋은 것을 골라



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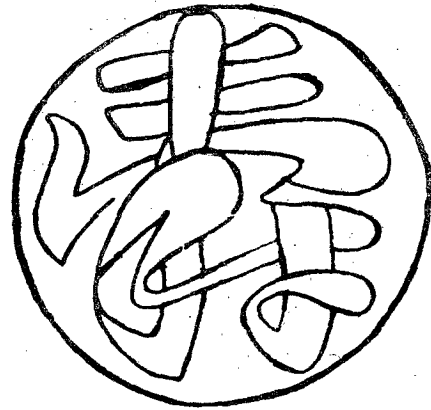


Fig. 8.

紋樣化하여 使用하였는데 그들에는 壽, 福, 龜 외에 囍紋(Fig.7), 康, 寧 등이 있다. 이밖에도 吉祥的인 뜻을 가진 紋樣 외에도 婦人들이 좋아하는 紋樣으로 Fig. 1과 같이 鳳凰에 곁들여 使用한 아름다운 姿態를 자랑하는 나비紋이 있다. 꿩은 조류로서 부부의 親愛階老를 나타내는데 使用한다. 龜는 遇조里大墓玄武圖에 있는데 走獸와 같이 긴 四脚을 가진 龜의 용모와 背甲이 特異하다고 한다.⁶ 이러한 類型에는 숙달되고 섬세한 圖案이어야 하고 정확한 繡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刺繡의 材料를 구할 수 있는 상점이나 수여점이 없었던 때는 實物을 보고 그렸거나 刺繡된 既成의 베갯보를 보고 圖案했거나 책에 나온 그림 서당선생님께 부탁하여 들기름 종이에 圖案하였다 한다. 근래에 多量生産을 目的으로 하는



Fig. 9.



Fig. 10.



Fig.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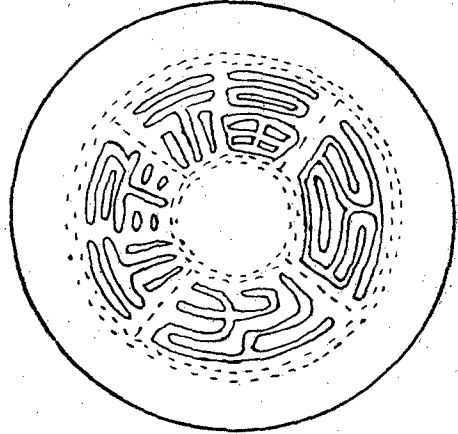


Fig. 12.

繡藝人들은 얼마전까지도 나무판에 각종 紋樣을 새겨 사용했었는데 智慧와 機術의 發達로 고무판에 새겨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 Fig. 11, 12는 王室用 繡枕本이다.³

2. 바탕 감

刺繡의 바탕이 되는 織物 乃至는 染色 染料도 刺繡와 不可分의 관계가 있다.

刺繡가 실로서 어떤 形象을 나타내며 色으로 形象을 물들이는 것일진대 繡를 놓는 織物이나 그 色과의 調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繡에 사용되는 실의 色은 繡놓을 織物의 色을 考慮하지 않고 選擇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

바탕감으로는 모든 刺繡가 在來 것 외에 돛자리, 마직, 비닐푸대, 망사, 그물, 가죽, 세미 등 各種 纖維로 幅 넓게 利用되고 있으나 베갯모의 刺繡만은 絹織物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베갯모 刺繡의 바탕이 되는 絹織物은 古朝鮮時代에 이미 絹織物 만드는 法을 알아 織造技術이 發達하여 왔으나 各種 무늬 織物이 貴重品이요 사치품으로 인정되어 거의 소비를 억제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이로 말미암아 織造技術 연마에 적지 않게 그 정열과 技術을 沮止하는 結果가 되었다. 이 抑制의 힘은 官의 壓力으로 나타나 이러한 官의 壓力 때문에 織造技術의 계속적인 發展을 沮害시켰는데 여기에 비해서 中國絹織物이 宮中과 上流家庭에 더 호감을 사게 되어 李朝後半에 와서는 완전히 織物經濟의 악순환을 가져왔다.⁶ 그러므로 中國에서 生産되는 絹織物의 種類로 莢縮, 毛縮, 模本緞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름은 色調와 枕樣, 組織, 素材 등의 特色에 따라 불리워졌다. 이러한 織物의 特色은 여

러가지 색을 혼방하지 않고 주로 단색을 사용한 점이다. 그리하여 무늬는 같은 색으로 짜서 넣는 무늬 뿐이고 다른 색과의 배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紋樣이 있는 바탕에 刺繡하면 그 繡가 돋보이지 않으므로 짐차 무늬가 없는 민바탕에 繡를 놓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繡가 민공단에 놓여지고 있다. 바탕색은 노랑, 초록, 다홍색이 주로이며 繡를 돋 보이기 위해서 흰색도 가끔 쓰였다. 베개 케멜베 사용되는 이증지는 같은 絹織物로 초록, 다홍, 남색을 사용한다.

3. 繡法과 수실

東洋刺繡의 繡法으로

紈繡: 白地綿에 刺繡한 것.

絳繡: 精巧細微한 葛布에 刺繡한 것.

綵繡: 五色の 色彩의 刺繡.

藻繡: 唐草紋을 繡놓은 것.

綿品: 金銀 모루娘.

績繡錯繡: 一種의 平繡.

暈繡: 우련자수.

平繡: Satin stitch.

鎖繡: Chain stitch.

등 多樣한 技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東洋刺繡라는 하나의 뚜렷한 성격이 엿보인다.⁹ 그러나 科學의 급속한 進歩와 生活樣式의 변천과 東西洋의 文化교류에 따라 新材料가 나오고 時代感覺에 맞는 새로운 技法이 發達하였지만 베갯모에 사용되는 刺繡法은 거의 변화가 없는 듯하다. 베갯모 刺繡 자체가 傳統의인 圖案인 만큼 繡法도 定하여져 있다. 대개 兩面刺繡인 平繡로 限定되다시피 하였으며 紋樣에 따라 자런수나 매듭수도 사용됐다. 平繡를 놓은 뒤에 圖案의 輪廓에 黃色의 絹絲로 線을 들렀거나 亞字를 연속무늬로 刺繡하였으며 색은 五彩를 많이 썼다. 속수는 立體感을 한층 더하기 위한 方法으로 실의 方向은 斜수와 반대되게 하며 圖案線보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놓는다. 속수에 사용되는 실은 예전에는 주로 綿絲를 사용하였는데 近來에는 솜, 리양실, 천부스리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紋樣에 따라 속실 사용이 다르는데 봉황, 닭 등의 배부분과 날개와의 사이에 리리양실을 넣어 뚜렷이 구별되게 하고 동백, 국화에는 솜을 넣어 더욱 立體感을 나게 한다. 가장자리의 亞字에도 리리양실을 사용하여 두드러지게 하였다. 亞字와 글씨의 斜수는 平繡로 擘사실을 그대로 사용하며 同一한 方向으로 繡를 놓는다. 주로 이숫놓기를 하고 글씨 획에 따라서 사선이 너무 길면 수실이 들뜰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색실로 뜨는 부분이 표가 나지 않게 덧수를 놓는다.

1960年代의 베갯모는 자수는 立體的이 아니었는데 1970年代에는 婦女子들의 안목이 한결

높아져 사용하던 織物, 絲의 色相이나 질이 높아졌으며 繡法도 다양해졌다.

Fig. 1, 2, 3의 베개는 확실한 年代는 알 수 없으나 50여년 전에 刺繡한 것으로 鳳枕은 네모 안에 원이 있으며 鳳은 8마리이다. 네모와 원사이에는 각 모마다 刺繡되었는데 두마리씩 色相이 다르다. 지금의 鳳枕과 다른 것은 九봉이나 七봉아 아닌 八봉이란 것과 속수를 놓지 않아 立體感이 없다. Fig. 3의 陵枕은 多紅의 模本緞 바탕에 매화, 즉, 松 목단, 연꽃 도라지 꽃의 紋樣으로 繡法은 平繡로 아주 精巧하다. 속은 六골로 골마다 絨실을 넣어 꿰맸기 때문에 벨때 줄 딱딱한 감이 있으나 刺繡된 六面이 볼록하게 나온 점이 다른 베개와는 다르다. 벨 때 딱딱한 감을 없애기 위해 왕겨나 솜을 넣기도 한다. 꿰매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刺繡된 陵枕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退枕의 베개모는 직사각형으로 絹織物이나 뚝자리에 간단하게 刺繡되었다. Fig. 2의 退枕은 정사각형에 가까우며 양쪽모에 각각 壽, 福으로 黃色 바탕에 연미색과 적색으로 刺繡되어 있으며 주위에는 여러가지 色相의 綉조각을 접어 대 놓았다. 바탕감은 模本緞으로 같은 色의 무늬가 있으며 壽字는 多紅色, 福字는 연미색으로 平繡이다.

Fig. 4의 태극침은 20여년 전에 刺繡한 것인데 繡가 약간 거칠다. 남색 바탕에 繡실은 중간색을 사용했다.

베개모 刺繡가 盛行했던 순창地方에서는 남색바탕을 사용하면 부부가 서로 남남이 된다는 口傳으로 남색 바탕 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다.

韓國 刺繡의 歷史를 통해 애용된 실로는 비단실과 불란서 자수실이라는 무명실이었다. 그러나 素材의 범위가 넓어지고 용도가 다양하여짐에 따라 사용되는 실의 種類도 많아졌다. 해방이후의 刺繡에서는 前來의 비단실이나 불란서 자수실 외에 리리양실, 안다리아실, 털실, 리본실, 인견 등의 여러 가지 실이 刺繡材料로서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나 베개모의 刺繡에는 비단실만을 사용하고 있다.

各 家庭에서 양잠을 하던 때는 직접 누에서 명주실을 뽑아 願하는 각가지 色相으로 染色하여 사용했다. 上流家庭에서는 며칠만에 서는 장날에 나가 색실을 구하였다. 생사를 8울정도 합해서 약간 絞아 精練하여 染色한 대사는 혼사 그대로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울수를 가감해서 絞아 사용했다. 한때는 명주와 인견을 絞아서 나온 끈사를 사용했으나 繡 자체가 品位가 없고 刺繡할 때 絞아지고 약해져서 끊어지기 때문에 다시 혼사인 명주실을 이용하고 있다. 실의 色相은 여러 가지 色을 혼합하지 않은 五原色(黃, 紅, 靑, 白, 黑)을 주로한 단일색을 사용하였으며, 그들의 생각하는 빨강색이란 피나 지붕위에 널려 있는 익은 고추의 색깔 정도이다. 초록이라면 새로이 움트는 벼의 색깔이나 소나무의 검푸른 초록 정도이다¹⁰와 같이 自然色 그대로를 나타내려고 애쓴듯하다. 또 순창의 한 婦女子는 나팔꽃을 刺繡할 때 실물을 보아가면서 刺繡했다 한다. 팔괘침은 老人은 순색이 좋되 젊은이의 것은 색실로 하거든 김중련은 검은 빛이요 禾虛中은 진홍이요 震下連은 푸른빛¹¹으로 刺繡한 것으로 노인과 젊은이의 베개의 色을 구별하던 때도 있었다.

지금의 刺繡는 染料의 發達로 色相이 아주 多樣하여졌다. 金絲, 銀絲는 紋樣을 裝飾할 때나 강조할 때 사용하며 여러가지 色이 혼합된 色金絲도 곁들여 사용한다.

V. 結 論

工業의 發達로 인한 高度産業社會에서는 우리生活 구석 구석까지 電氣化 내지 機械化의 물결이 미치게 됨으로써 家內工業的인 刺繡는 옛것을 그리고 보다 순수한 藝術創造라는 矜持까지 갖게 됨으로써 個性的인 要素를 必要로 하게 되었다. 刺繡는 織物과 纖維를 그 材料로 했으며 그 技法과 圖案의 素材에 무한한 多樣性을 주어왔으나 因襲的인 環境과 精密함으로서 製作上의 時間的, 勞苦的 束縛으로 극히 微微한 發展을 해왔다. 또한 産業의 發達과 더불어 刺繡와 不可分에 關係가 있는 織物, 絲, 染色述이 發達하고 刺繡 또한 一般的인 것은 機械化 되어 하나의 産業刺繡로 發展하고 있다. 그러나 베갯모의 刺繡는 圖案, 繡法이 옛날 그대로를 踏襲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개는 옛날부터 一般家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結婚하는때는 반드시 必要하다는 하나의 貫習으로 손수 本人이 刺繡하거나 刺繡된 베갯모를 購入하였다. 모든 베갯모의 바탕감은 絹織物로 圖案은 비는 마음으로 吉祥을 象徴하고 寫實的이다. 愛用된 실로는 비단실에 金, 銀絲를 곁들여 繡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또 濃淡을 나타내기 위하여 엷은 색과 짙은 색을 竝用하여 사용했으며 繡法은 거의 平繡에 매듭수, 즐기수, chain stitch로 놓았다.

結婚할 때 베개의 數는 地域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上流家庭에서는 本人이 使用하는 것 외에 封送하기 위해서 여러개를 準備하였으나 一般家庭에서는 鳳枕 1개, 소침 2개(인사베개) 정도였다 한다. 베갯모를 必要에 따라 各家庭에서 準備하던 때는 대개 12~15세 以後부터 刺繡를 始作했으며 청실, 홍실 繡를 놓아 婚需감 準備에 精誠을 다하였으나 咫尺이 千里인듯 발 들음만 하면 내다보이는 울타리 밖의 世上을 갇힌 새모양 갑갑하게 살아가는 韓國女性의 因習의 유산으로서 民俗의 傳統을 繼承하면서도 生活의 必須品으로서 産物을 할 수 있는 量産體制를 갖추고 機械化된 産業社會에서 一般的인 刺繡와 더불어 베갯모의 刺繡도 工藝品으로서 格을 갖출 수 있다고 믿으며 技術的인 문제는 專門的인 繡藝家의 과제로 여겨 研究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發展的인 來日도 기대도 가능하리라 믿는다.

參 考 文 獻

1. 閔康淑: 家庭學論文集, 民衆書館, 228, 229, 293, 158~159, (1968)
2. 任洪淳: 繡제2집, 16, 13, (1974)
3. 石寅善: 韓國服飾史, 寶晉齋, 192, 680, (1971)
4. 下中彌三郎: 世界美術全集, 平凡社, 95, (昭和 28)

5. 崔玉子: 수도사대 논문 제5집, 2, 18, 3, (1971)
6. 金永基: 朝鮮 美術史, 金龍圖書株式會社, 15, 21, (1947)
7. 李淑姬: 祥明女子師範大學 論文集, 112, (1972)
8. 趙圻烘: 家政學論文集, 民衆書館, 19, 17, (1968)
9. 嚴丁潤: 家政學論文集, 民衆書館, 162, (1968)
10. 申福龍譯: 大韓帝國史序載, 採求堂, 321, (1973)
11. 鄭良婉編: 閩閩叢書, 寶晉齋, 144, (1975)

A Study on the Embroider of Korean

—Chiefly on the Peykayq mo—

Kum-Soon Oh

Dept. of Home Economics Gwangju Seowon Junior College.

>Abstract<

The oriental embroidery is an technology.

Women embroidered the pictares that look little a real one with embroidery thread. From the learning of embroidery they have developed carefulness, endurance and the spirits of working as well as the artistic creativeness and a creative spirit.

Handicraft articles are made out of textiles and fibers. Women have been leading their own handiorafts in the from of domestic industry, because of its preducting methods and tools.

At the present time, embroidery is being moderniged.

As the result, its design and techniques have improved.

New it is possible for a little amount of work to express much effects, while pey-kayq mo(embroidered pads attached to both sides of a pillow for decoration) still follows the pattern of traditional embroidery. Its matter and raw materials are limited, too.

1. The design of peykayq mo stands as a symbol for a lucky omen.
2. Its texture is silk fabrics which is woven with silk without patterns.
3. Women embroider it out of silk thread, and thread, and they of ten mix gold thread with silver thread.
4. Although how to embroider varies with shapes, women usually has embroider satin stitch, sometmes they mix light collar with dark one. Funthermore, they use french knot stitch or outline stitch.